

## 코로나19에 따른 대학생의 개인방역태도 조사

이연희<sup>1</sup>, 양옥렬<sup>2\*</sup>

<sup>1,2\*</sup>혜전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 A survey of College Students' Personal Quarantine Attitudes according to COVID-19

Yeon-Hee Lee<sup>1</sup>, Ok-Yul Yang<sup>2\*</sup>

<sup>1</sup>Department of Healthcare & Medical Administration, Hyejeon University

###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따른 대학생의 개인방역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충남 소재 대학교에 등교하는 20세 이상 대학생 285명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의 태도는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마스크를 벗을 시 마스크 보관 방법이나 학교에서의 책상 등 주변 사물의 소독하는 방역태도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개인방역태도는 앞으로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더 나아가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한 기본적인 방침으로 국가의 방역시스템체계 속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using the Google questionnaire on 285 college students over 20 years old who attended universities in Chungnam to investigate the personal quarantine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COVID-19. As a result, the attitude of washing hands, coughing etiquette, wearing a mask, and keeping distance under running water for more than 30 seconds scored high. However, when the mask was removed, the method of storing the mask or disinfecting surrounding objects such as desks at school was insufficient. Therefore, the attitude of personal quarantine should be more emphasized in the national quarantine system as a basic policy for preventing the spread of COVID-19 in the future and ending the virus.

**Key Words** COVID-19, Personal Quarantine, College students

## 1. 서론

2020년 전 세계를 공포와 혼란으로 몰아넣은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을 바꾸어 놓았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는 2019년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하여 2019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되었으며, 2020년 2월 11일 세계보건기구에서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로 공식 명명하였다[1]. 그 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는 1968년 홍콩독감(Hong Kong Influenza, A/H3N2), 2009년 신종플루(Novel Swine-Origin Influenza A, H1N1)에 이어 세 번째로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하였다

[2].

코로나19의 잠복기(incubation period)는 평균 5.1일로 짧게는 2일부터 길게는 14일까지 존재하며, 환자는 대부분 발열, 인후통, 마른기침, 피곤함 등의 증상을 보이고, 비전형적으로 설사, 오심(구역질), 근육통, 두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혈액 검사에서는 림프구의 감소가 특징적이다. 빠른 확산을 보이는 코로나19는 감염이 되어도 무증상이거나 감염 후 1주 정도는 보통의 감기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감염을 인지하지 못하고 '걸어 다니는 보균자(walking carrier)'가 되어 전파를 빠르게 한다[3]. 코로나19는 생명의 위협뿐 아니라 경제적 타격과 개인의 정신건강까지 피해를 주며 공포, 불안, 긴장, 두려움 등이 확산되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2].

\*Corresponding Author : Ok-Yul YANG(Hyejeon Univ.)

Tel: \*\*\* - \*\*\*\* - \*\*\*\* Email: cache@hj.ac.kr

Received November 26, 2020

Revised December 11, 2020

Accepted December 22, 2020

2020년 11월, 현시점에서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 확산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던 코로나19는 현재 국경 없이 확산 되면서 학교수업의 온라인방식, 재택근무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방역은 중요한 생활지침이 되었다[4]. 한국정부는 2020년 2월 23일 감염병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하면서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30초간 손 씻기, 아프면 집에서 쉬기,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술잔 돌리지 않기, 식사 중 대화 자제하기 등 일상생활의 지침을 마련하며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5].

미국 질병관리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마스크 착용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관련된 '3대 금지 수칙' 중 하나로 제시하였고,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으로 손을 씻고 재채기와 기침을 커버하는 위생 조치라고 하였으며, 비의료적 환경에서 비말 감염이 가능한 밀집된 거리는 3~6 feet(약 1m~1.828m)로, 우리나라에서는 약 1~2m로 안내하고 있다[6].

2020년 11월 21일 현재, 코로나19의 국내 발생현황은 누적 확진자 30,403명으로 연일 300명 이상이 확진되고 있으며 사망은 503명으로 사망률은 1.65이다. 국외 발생현황은 확진자 총 56,593,670명이며 사망은 1,355,462명에 이른다. 국가별 발생현황을 보면 미국은 확진자 11,413,788명, 사망 248,571명, 사망률 2.18이며, 영국은 확진자 1,453,260명, 사망 53,775명, 사망률 3.70이고, 이탈리아는 확진자 1,308,528명, 사망 47,870명, 사망률 3.66이다. 인도는 확진자 9,004,365명, 사망 132,162, 사망률 1.47이며, 멕시코는 확진자 1,015,071명, 사망 99,528명, 사망률은 9.81로 다른 국가에 비해 사망률이 크게 높은 수치이다[7].

2020년 11월 현재,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회사들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백신개발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다.

러시아는 벡터(전달체) 방식의 '스푸트니크V' 코로나19백신을 개발하고 지난 10월 WHO에 의약품 품질규격을 심의 중이다. 중국은 국영기업 시노팜 자회사인 중국생물기술집단(CNBG)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임상시험 중이지만 충분한 검증이 없어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11월 현재, 신뢰할 수 있는 3가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독일 바이오엔테크가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BNT16b2'을 개발하고 임상3상에서 '95%'의 효능을 보인다고 발표하였으며, 미국 모더나-미국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NIAID)가 공동개발한 mRNA 기반 'AmRNA-1273' 백신 역시 임상3상 결과 94.5%의 효능을 보인다고 발표하였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옥스포드대학교에서는 벡터기반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AZD1222' 백신을 개발하여 임상3상 진행 중이며 90%의 효능을 보인다고 발표하였다[8]. 코로나19 백신 이외에도 치료제에 대한 개발도 다양하게 진행 중인데, 한국의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CT-P59(성분명: 레그단비맵·Regdanvimab)'는 임상2상을 완료하였으며, 미국, 루마니아, 스페인 등에서 임상2상, 3상 진행에 대한 승인까지 마쳤으며, 10만명까지 치료할 수 있는 물량을 준비중이다[9].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까지 대량생산 및 양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코로나19예방을 위해서는 개인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 19일자 질병관리청 홍보용 포스터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대비 일반국민 행동수칙 10'에는 실내시설, 밀집된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환기가 안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

자제하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팔 간격 2m(최소 1m)거리두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소독하기,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확인하기, 필요하기 않은 여행 자제하기의 내용이 담겨있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아직까지 대량생산 및 양산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개인방역의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개인방역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개인방역의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조사대상

충남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등교하는 20세 이상의 대학생 285명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3일부터 2020년 11월 13일까지 자기기입의 형식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 2.2 조사방법 및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 관한 연구의 취지와 문항을 구글설문지(Google Docs)로 작성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URL을 배포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개인방역의 태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에 응한 대상은 291명이며, 이중 결측값을 제외한 최종 285명의 설문 응답이 통계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의 문항은 일반적 특성(5문항), 손씻기(3문항), 기침예절(1문항), 마스크 사용(9문항), 거리두기(2문항), 코로나19 정보(3문항), 학교생활(3문항), 집 생활(2문항), 상황인식(5문항) 등 총 33문항을 설문조사 하였다. 손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착용태도, 거리두기, 코로나19정보, 학교와 집 생활, 상황인식의 문항에서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개인방역태도 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수와 백분율 그리고 평균 및 표준편차를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는 구글 설문 통계프로그램과 엑셀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3. 결과

### 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Table 1] 같다. 성별은 ‘남자’ 94명(33%), ‘여자’ 191명(67%), 나이는 ‘20~24세’ 249명(87.4%), ‘25~29세’ 18명(6.3%), ‘30~34세’ 2명(0.7%), ‘35세 이상’은 16명(5.6%)이었다. 학년으로는 ‘1학년’ 117명(41.1%), ‘2학년’ 110명(38.6%), ‘3학년’ 19명(17.2%), ‘4학년’ 9명(3.2%)이며, 교통수단은 ‘도보’ 76명(26.7%), ‘기차’ 70명(24.6%), ‘스쿨버스’ 55명(19.3%), ‘자가용’ 32명(11.2%), ‘자가운전’ 22명(7.7%), ‘기타’ 11명(3.9%), ‘일반버스’ 10명(3.5%), ‘고속버스’ 9명(3.2%)이었다. 주거형태로는 ‘가족과 거주’ 185명(64.9%), ‘혼자거주’ 43명(15.1%), ‘학교 기숙사’ 35명(12.3%), ‘친구와 거주’ 17명(6%), ‘기타’ 5명(1.8%)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표 1] 일반적 특성** N= 285

특성	구분	N	%
성별	남	94	33.0
	여	191	67.0
나이	20~24세	249	87.4
	25~29세	18	6.3
	30~34세	2	0.7
	35세 이상	16	5.6
학년	1학년	117	41.1
	2학년	110	38.6
	3학년	19	17.2
	4학년	9	3.2
교통수단	도보	76	26.7
	일반버스	10	3.5
	스쿨버스	55	19.3
	기차	70	24.6
	고속버스	9	3.2
	자가용	32	11.2
	자가운전	22	7.7
기타	11	3.9	
주거 형태	혼자 거주	43	15.1
	친구와 거주	17	6.0
	가족과 거주	185	64.9
	학교 기숙사	35	12.3
	기타	5	1.8

### 3.2 손씻기

손씻기에 대한 태도는 [Table 2]와 같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는 평균 3.92이며, ‘매우 그렇다’ 104명(36.5%), ‘그렇다’ 80명(28.1%), ‘보통이다’ 76명(26.7%), ‘그렇지 않다’ 23명(8.1%), ‘전혀 그렇지 않다’ 2명(0.7%)이었다.

손소독제를 휴대하며 소독으로는 평균 2.57이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85명(29.8%), ‘그렇지 않다’ 67명(23.5%), ‘보통이다’ 59명(20.7%), ‘매우 그렇다’ 40명(14%), ‘그렇다’ 34명(11.9%)이었다.

평상 시 자주 손 씻기는 평균 4.21로 ‘매우 그렇다’ 132명(46.3%), ‘그렇다’ 89명(31.2%), ‘보통이다’ 55명(19.3%)의 순이었으며,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각각 0명이었다.

[Table 2] Washing hands

**[표 2] 손씻기** N= 28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N	%	N	%	N	%	N	%	N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2	0.7	23	8.1	76	26.7	80	28.1	104	36.5	3.92 ±1.01
손소독제 휴대하며 손 소독	85	29.8	67	23.5	59	20.7	34	11.9	40	14	2.57 ±1.39
평상 시 자주 손 씻기	0	0	9	3.2	55	19.3	89	31.2	132	46.3	4.21 ±0.86

### 3.3 기침예절

기침예절에 대한 태도는 [Table 3]과 같다. 기침예절 지키기(옷소매, 휴지 등으로 입고 코를 가리는 방법)는 평균 4.53으로 ‘매우 그렇다’ 183명(64.2%), ‘그렇다’ 71명(24.9%), ‘보통이다’ 30명(10.5%), ‘그렇지 않다’ 1명(0.4%)이었다.

[Table 3] Cough Etiquette

**[표 3] 기침예절** N= 28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N	%	N	%	N	%	N	%	N	%	
기침예절 지키기	0	0	1	0.4	30	10.5	71	24.9	183	64.2	4.53 ±0.69

### 3.4 마스크 사용

마스크 사용은 [Table 4-1]과 같다. 주로 사용하는 마스크는 ‘KF94 마스크’ 102명(35.85%), ‘덴탈 마스크’ 87명(30.5%), ‘KF80 마스크’ 56명(19.6%), ‘비말차단 마스크’ 14명(4.9%), ‘면 마스크’ 26명(9.1%)의 순이었고, 선호하는 마스크는 ‘KF94 마스크’ 108명(37.9%), ‘KF80 마스크’ 19명(6.7%), ‘비말차단 마스크’ 56명(19.6%), ‘덴탈 마스크’ 79명(27.7%), ‘면 마스크’ 23명(8.1%)로 조사되었다. 마스크를 벗을 시 마스크 보관 방

법으로는 ‘마스크목걸이를 사용한다’ 74명(26%), ‘벗은 마스크를 주변의 물건 위에 놓는다’ 65명(22.8%), ‘벗은 마스크를 옷 안에 넣는다’ 60명(21.1%), ‘마스크를 탁에 걸쳐 놓는다’ 54명(18.9%), ‘마스크를 손목에 걸쳐 놓는다’ 16명(5.8%), ‘기타’ 11명(3.9%), ‘벗은 마스크를 마스크 포장지에 다시 넣는다’ 5명(1.8%)이었으며, 1회용 마스크의 평균 사용 빈도로는 ‘1일 1개’ 160명(56.1%), ‘주 4개 이하’ 52명(18.2%), ‘주 5개 이상’ 30명(10.5%), ‘주 2개 이하’ 26명(9.1%), ‘1일 2개 이상’ 17명(6%),로 조사되었다.

[Table 4-1] Mask Use

**[표 4-1] 마스크사용** N= 285

특성	구분	N	%
주로 사용하는 마스크	KF 94	102	35.8
	KF 80	56	19.6
	비말차단	14	4.9
	덴탈	87	30.5
	면	26	9.1
선호하는 마스크	KF 94	108	37.9
	KF 80	19	6.7
	비말차단	56	19.6
	덴탈	79	27.7
면		23	8.1
마스크 벗을 시 마스크 보관	마스크를 탁에 걸쳐 놓는다	54	18.9
	벗은 마스크를 마스크 포장지에 다시 넣는다	5	1.8
1회용 마스크의 평균 사용수	마스크목걸이를 사용한다	74	26.0
	벗은 마스크를 주변의 물건 위에 놓는다	65	22.8
	벗은 마스크를 옷 안에 넣는다	60	21.1
	마스크를 손목에 걸쳐 놓는다	16	5.8
	기타	11	3.9
1회용 마스크의 평균 사용수	1일 2개 이상	17	6.0
	1일 1개	160	56.1
	주 5개 이상	30	10.5
	주 4개 이하	52	18.2
주 2개 이하	26	9.1	

마스크 착용에 대한 태도는 [Table 4-2]와 같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평균 4.58로 ‘매우 그렇다’ 195명(68.45%), ‘그렇다’ 61명(21.4%), ‘보통이다’ 27명(9.5%), ‘그렇지 않다’ 2명(0.7%)이었으며, 마스크 착용 시 입과 코 가리고 틈이 없도록 착용한다는 평균 4.54로 ‘매우 그렇다’ 189명(66.3%), ‘그렇다’ 62명(21.8%), ‘보통이다’ 33

명(11.6%), ‘그렇지 않다’ 1명(0.4%)이었다.

마스크를 쓰거나 벗을 때 마스크 앞부분을 만지지 않고 마스크 끈만 이용한다는 평균 3.74로 ‘매우 그렇다’ 110명(38.6%), ‘보통이다’ 77명(27%), ‘그렇다’ 50명(17.5%), ‘그렇지 않다’ 36명(12.6%), ‘전혀 그렇지 않다’ 12명(4.2%)이었으며, 마스크 착용 전에 깨끗이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평균 3.58로 ‘보통이다’ 100명(35.1%), ‘매우 그렇다’ 85명(29.8%), ‘그렇다’ 54명(18.9%), ‘그렇지 않다’ 33명(11.6%), ‘전혀 그렇지 않다’ 13명(4.6%)의 순이었다.

[Table 4-2] Attitude of Wearing a Mask

**[표 4-2] 마스크착용태도** N= 28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N	%	N	%	N	%	N	%	N	%	
올바른 마스크 착용	0	0	2	0.7	27	9.5	61	21.4	195	68.4	4.58 ±0.69
마스크 착용 시 입과 코 가리고 틈이 없도록 착용	0	0	1	0.4	33	11.6	62	21.8	189	66.3	4.54 ±0.71
마스크를 쓰거나 벗을 때 마스크 앞부분을 만지지 않고 마스크 끈만 이용	12	4.2	36	12.6	77	27	50	17.5	110	38.6	3.74 ±1.22
마스크 착용 전에 깨끗이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	13	4.6	33	11.6	100	35.1	54	18.9	85	29.8	3.58 ±1.16
마스크 착용 중 마스크 앞부분을 만지지 않음	26	9.1	50	17.5	82	28.8	55	19.3	72	25.3	3.34 ±1.28
마스크를 만진 후에는 깨끗이 손 씻기	19	6.7	42	14.7	84	29.5	61	21.4	79	27.7	3.49 ±1.23

마스크 착용 중 마스크 앞부분을 만지지 않음에 대해서는 평균 3.34로 ‘보통이다’ 82명(28.8%), ‘매우 그렇다’ 72명(25.3%), ‘그렇다’ 55명(19.3%), ‘그렇지 않다’ 50명(17.5%), ‘전혀 그렇지 않다’ 26명(9.1%)이었으며, 마스크를 만진 후에는 깨끗이 손 씻기는 평균 3.49로 ‘보통이다’ 84명(29.5%), ‘매우 그렇다’ 79명(27.7%), ‘그

렇다’ 61명(21.4%), ‘그렇지 않다’ 42명(14.7%), ‘전혀 그렇지 않다’ 19명(6.7)이었다.

### 3.5 거리두기

거리두기에 대한 태도는 [Table 5]와 같다. 나는 사람과 만날 때 사람과의 간격을 최소 1m이상 유지한다는 평균 3.05로 ‘보통이다’ 115명(40.4%), ‘그렇지 않다’ 63명(22.1%), ‘그렇다’ 57명(20%), ‘매우 그렇다’ 30명(10.5%), ‘전혀 그렇지 않다’ 20명(7%)의 순이었으며, 나는 의식적으로 모임이나 행사 등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한다는 평균 3.75로 ‘매우 그렇다’ 88명(30.9%), ‘보통이다’ 89명(31.2%), ‘그렇다’ 77명(27%), ‘그렇지 않다’ 24명(8.4%), ‘전혀 그렇지 않다’ 7명(2.5%)이었다.

[Table 5] Distance  
[표 5] 거리두기

N= 28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N	%	N	%	N	%	N	%	N	%	
	사람과 만날 때 사람과의 간격을 최소 1m이상 유지 의식적으로 모임이나 행사 등 사람이 많은 곳 피함	20	7	63	22.1	115	40.4	57	20	30	
	7	2.5	24	8.4	89	31.2	77	27	88	30.9	3.75 ±1.06

### 3.6 코로나19 정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는 [Table 6-1]과 [Table 6-2]와 같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는 어느 매체를 통해 접하십니까?는 ‘인터넷’ 148명(51.9%), ‘긴급문자발송’ 139명(48.8%),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12.4명(43.5%), ‘TV’ 115명(40.4%), ‘유튜브’ 62명(21.8%), ‘지인’ 41명(14.4%), ‘기타’ 10명(3.5%), ‘라디오’ 5명(1.8%)의 순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매일 체크한다는 평균 3.39로 ‘보통이다’ 91명(31.9%), ‘그렇다’ 69명(24.2%), ‘매우 그렇다’ 64명(22.5%), ‘그렇지 않다’ 37명(13%), ‘전혀 그렇지 않다’ 24명(8.4%)

이었으며,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대한 긴급문자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평균3.94로 ‘매우 그렇다’ 106명(37.9%), ‘그렇다’ 83명(29.1%), ‘보통이다’ 69명(24.2%), ‘그렇지 않다’ 20명(7%), ‘전혀 그렇지 않다’ 5명(1.8%)이었다.

[Table 6-1] COVID-19 Information  
[표 6-1] 코로나19 정보

N= 285

특성	구분	N	%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입수 경로 (복수선택 가능)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124	43.5
	유튜브	62	21.8
	TV	115	40.4
	라디오	5	1.8
	인터넷	148	51.9
	지인	41	14.4
	긴급문자발송	139	48.8
	기타	10	3.5

[Table 6-2] COVID-19 Information  
[표 6-2] 코로나19 정보

N= 28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N	%	N	%	N	%	N	%	N	%	
	코로나19 발생상황 매일체크	24	8.4	37	13	91	31.9	69	24.2	64	
코로나19 발생상황긴급 문자가 도움이 됨	5	1.8	20	7	69	24.2	83	29.1	106	37.9	3.94 ±1.03

### 3.7 학교생활

학교에서의 개인방역태도는 [Table 7]과 같다. 학교에서 매번 강의실에 들어 갈 때마다 손을 소독한다는 평균 3.67로 ‘보통이다’ 91명(31.9%), ‘매우 그렇다’ 81명(28.4%), ‘그렇다’ 74명(26%), ‘그렇지 않다’ 32명(11.2%), ‘전혀 그렇지 않다’ 7명(2.5%)이었으며, 학교에서 내가 사용하는 책상 등 주변의 사물을 소독하고 사용한다는 평균 2.93으로 ‘보통이다’ 92명(32.3%), ‘그렇지 않다’ 64명(21.4%), ‘전혀 그렇지 않다’ 45명(15.8%), ‘그렇다’ 44명(15.4%), ‘매우 그렇다’

43명(15.1%)이었다.

학교 안에서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는 평균 4.27로 ‘매우 그렇다’ 152명(53.3%), ‘그렇다’ 73명(25.6%), ‘보통이다’ 48명(16.8%), ‘그렇지 않다’ 10명(3.5%), ‘전혀 그렇지 않다’ 2명(0.7%)이었다.

[Table 7] School life

[표 7] 학교생활

N= 28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N	%	N	%	N	%	N	%	N	%	
매년 강의실에 들어 갈 때마다 손 소독	7	2.5	32	11.2	91	31.9	74	26	81	28.4	3.67 ±1.08
사용하는 책상 등 주변 사물 소독 후 사용	45	15.8	64	21.4	92	32.3	44	15.4	43	15.1	2.93 ±0.27
음식물 섭취 제외하고 마스크 벗지 않기	2	0.7	10	3.5	48	16.8	73	25.6	152	53.3	4.27 ±0.91

### 3.8 집 생활

집에서의 개인방역태도는 [Table 8]과 같다. 집에서 창문을 열고 공기를 환기시킨다는 평균 4.18로 ‘매우 그렇다’ 136명(47.7%), ‘그렇다’ 81명(28.4%), ‘보통이다’ 55명(19.3%), ‘그렇지 않다’ 9명(3.2%), ‘전혀 그렇지 않다’ 4명(1.4%)이었으며, 집에서 손이 자주 닿는 사물을 소독한다는 평균 3.27로 ‘보통이다’ 94명(33%), ‘매우 그렇다’ 61명(21.4%), ‘그렇다’ 57명(20%), ‘그렇지 않다’ 43명(15.1%), ‘전혀 그렇지 않다’ 30명(10.5%)이었다.

[Table 8] House Life

[표 8] 집생활

N= 28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N	%	N	%	N	%	N	%	N	%	
창문 열고 공기 환기	4	1.4	9	3.2	55	19.3	81	28.4	136	47.7	4.18 ±0.95
손이 자주 닿는 사물 소독	30	10.5	43	15.1	94	33	57	20	61	21.4	3.27 ±1.25

### 3.9 상황인식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인식과 전망에 대해서는 [Table 9-1]과 [Table 9-2]와 같다. 코로나 19에 감염되는 것이 두렵다는 평균 4.41로 ‘매우 그렇다’ 184명(64.6%), ‘그렇다’ 53명(18.6%), ‘보통이다’ 35명(12.3%), ‘그렇지 않다’ 8명(2.8%), ‘전혀 그렇지 않다’ 5명(1.8%)이었고, 현재 코로나 19 상황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평균 4.11로 ‘매우 그렇다’ 134명(47%), ‘그렇다’ 74명(26%), ‘보통이다’ 58명(20.4%), ‘그렇지 않다’ 12명(4.2%), ‘전혀 그렇지 않다’ 7명(2.5%)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마스크 미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평균 4.04로 ‘매우 그렇다’ 120명(42.1%), ‘그렇다’ 78명(27.4%), ‘보통이다’ 72명(25.3%), ‘그렇지 않다’ 9명(3.2%), ‘전혀 그렇지 않다’ 6명(2.1%)이었고,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 19에 대한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킨다고 생각한다는 평균 3.78로 ‘그렇다’ 93명(32.6%), ‘보통이다’ 88명(30.9%), ‘매우 그렇다’ 79명(27.7%), ‘그렇지 않다’ 20명(7%), ‘전혀 그렇지 않다’ 5명(1.8%)이었다.

코로나19 상황은 언제쯤 안정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는 ‘2년 이내’ 105명(36.8%), ‘1년 이내’ 86명(30.2%), ‘앞으로도 안정화 되지 않을 것이다’ 53명(18.6%), ‘3년 이상’ 25명(8.8%), ‘6개월 이내’ 16명(5.6%)이었다.

[Table 9-1] Situational Awareness

[표 9-1] 상황인식

N= 28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N	%	N	%	N	%	N	%	N	%	
코로나19 감염의 두려움	5	1.8	8	2.8	35	12.3	53	18.6	184	64.6	4.41 ±0.93
현재 코로나 19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음	7	2.5	12	4.2	58	20.4	74	26	134	47	4.11 ±1.03
주변 사람들의 마스크 미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음	6	2.1	9	3.2	72	25.3	78	27.4	120	42.1	4.04 ±1.00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고 생각	5	1.8	20	7	88	30.9	93	32.6	79	27.7	3.78 ±0.99

[Table 9-2] Prediction

[표 9-2] 상황예측 N= 285

특성	구분	N	%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예측 기간	6개월 이내	16	5.6
	1년 이내	86	30.2
	2년 이내	105	36.8
	3년 이상	25	8.8
	앞으로도 안정화 안됨	53	18.6

#### 4. 결론

코로나19는 현 시점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산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임상실험을 모두 통과하고 대량생산과 양산체계에 들어선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3차 유행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방역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따른 개인방역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충남 소재 대학교에 등교하는 20세 이상 대학생 285명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 결과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는 평균 3.92이었지만, 손소독제 휴대하며 손독은 평균 2.57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손소독제는 휴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평상 시 자주 손씻기는 평균 4.21로 코로나19로 인해 손을 자주 씻는 태도를 보였고, 옷소매, 휴지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방법 등의 기침예절 지키기는 평균 4.53으로 높았으며 기침예절을 잘 지키고 있었다. 마스크에 대한 문항에서 주로 사용하는 마스크와 선호하는 마스크는 KF94, 덴탈, 비말차단, KF80, 면 마스크의 순이었다.

마스크를 벗을 시 마스크 보관 방법으로는 ‘마스크목걸이를 사용한다’ 26%, ‘벗은 마스크를 주변의 물건 위에 놓는다’ 22.8%, ‘벗은 마스크를 옷 안에 넣는다’ 21.1%, ‘마스크를 턱에 걸쳐 놓는다’ 18.9%, ‘마스크를 손목에 걸쳐 놓는다’ 15.8%로 사용한 마스크를 잠시 벗어 놓을 때 마스크가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회용 마스크의 평균 사용 빈도로는 ‘1일 1개 사용’이 56.1%로 조사되어 재고가 부족했던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마스크의 사용량은 1일 1개가 많았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평균 4.58, 마스크 착용 시 입과 코 가리고 틈이 없도록 착용한다는 평균 4.54로 조사되었으나 이에 반해 마스크를 만지는 태도에서는 접수가 조금 낮게 조사되었다. 마스크를 쓰거나 벗을 때 마스크 앞부분을 만지지 않고 마스크 끈만 이용한다는 평균 3.74, 마스크 착용 전에 깨끗이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평균 3.58, 마스크 착용 중 마스크 앞부분을 만지지 않음에 대해서는 평균 3.34, 마스크를 만진 후에는 깨끗이 손 씻기는 평균 3.49로 마스크 착용에 관한 개인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거리두기에 대한 태도에서 나는 사람과 만날 때 사람과의 간격을 최소 1m이상 유지한다는 평균 3.05, 나는 의식적으로 모임이나 행사 등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한다는 평균 3.75로 코로나 19 확산을 예방 위해서는 거리두기에 대한 개인 의식이 더욱 상승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긴급문자 발송,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얻었으며, 코로나 19 발생 상황을 매일 체크한다는 평균 3.39, 코로나 19 발생상황에 대한 긴급문자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평균 3.94였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K방역의 중심이 되는 정보화는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개인방역태도는 학교에서 매번 강의실에 들어 갈 때마다 손을 소독한다는 평균 3.67, 학교 안에서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는 평균 4.27이었다. 그러나, 학교에서 내가 사용하는 책상 등 주변의 사물을 소독하고 사용한다는 평균 2.93으로 학교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장소 측에서의 방역뿐만 아니라 개인 측면에서도 이중의 방역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집에서의 개인방역태도는 집에서 창문을 열고 공기를 환기시킨다는 평균 4.18, 집에



서 손이 자주 닿는 사물을 소독한다는 평균 3.27이었다.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인식과 전망에 대해서는 코로나 19에 감염되는 것이 두렵고(평균 4.41) 현재 코로나 19 상황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평균 4.11), 주변 사람들이 마스크 미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평균 4.04)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였고, 코로나19 상황은 앞으로 1~2년 이내 안정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개인방역 태도는 앞으로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더 나아가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한 기본적인 방침으로 국가의 방역시스템체계 속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다른 지역 내의 대상으로 확대하여 반복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추후 개인별로 방역태도를 점검하고, 개인의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S-S. Song, 'Laboratory Diagnosis of Coronavirus Disease 19(COVID-19) in Korea: Current Status, Limitation, and Challenges', *Korean J Clin Lab Sci.* 2020.
- [2] H-J. Lee and H-Y. Lee, 'COVID-19 Stress: Is the level of COVID-19 stress same for everybody?-Segmentation approach based on COVID-19 Stress level-', *KOREA LOGISTICS REVIEW*, Vol.30, No.4. August 2020.
- [3] S-S. Song, Y-R. Lee, S-M. Kim, W-T. Kim, J-W. Choi, D-H. Yoo, J-Y. Yoo, K-T. Jang, J-W. Lee and J-H. Jun, 'Laboratory Diagnosis of Coronavirus Disease 19(COVID-19) in Korea: Current Status, Limitation, and Challenges', *Korean J Clin Lab Sci.*, Vol.52, No.3, pp. 284-295, 2020.
- [4] M-A. Sung, M-J. Chin, Y-E. Chang and S-H. Son, 'Changes in Daily Life and Perceived Stress of Single-Person Household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Focusing on Social Support and Family Resilienc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25, No.3, 2020.

[5] M-J. Chin, M-A. Sung, S-H. Son, J-E. Yoo, J-R. Lee and Y-E. Chang, 'Changes in Family Life and Relationship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their Associations with Perceived Stress', *Fam. Environ. Res.*, Vol.58, No.3. pp. 447-461, August 2020.

[6] O-Y. Woo, 'Challenges of the New Corona-19 and Health Education-Based Preventive Cooperation System', *Journal of Political Criticism*, vol.26, 2020.

[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8] MEDICAL Observer, <http://www.monews.co.kr/news>

[9] Yonhap news, <https://www.yna.co.kr/view/AKR>

[10] KDCA, <http://www.kdca.go.kr/>